



# 파월장병위문기

학생과장 김 종 연 (完)

[illegible]

부처 — 또는 한라산에  
등반회를 제두으로  
배려하여 용자  
가 살라고 간  
다. 그러므로  
전설로 두들  
자는 포근한  
것과 같은 山情  
정도로 숙고  
으로 절친한 수  
도 또한 간직하  
一言之下 하  
상과 정기는하  
근접자한 위용  
이 『호손』의  
원일절전 金洲州  
의 이정표로서  
뜻은 한라의 정  
패기와 용기  
수 있는 이

바(第二回) 개화하는 누구  
나 거ող할만한 일이다.  
동일의 어느 시인은 「내  
영웅이」 고독하는 산으로  
가마고 달한 말이 있다  
산은 인생의 묘사이며  
생의 고향이다. 산을 타는  
데서 인생의 진면목을 체  
험할 수 있다. 등반을 하  
는 데는 많은 애로와 난  
관을 극복하는 인내가 있  
어야 한다. 고난과 고종의  
장예를 몸소 체험하는 것  
이다. 그러나 강인한 인내  
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또한 기쁨과 승리의 쾌감  
이 따른다. 바로 인생의 경  
정도 그러한 것이다. 생이  
탄 성격과 순정의 자비라  
품이며 행복 불행의 근  
하는 요철의 행로이다. 또  
회향성의 봄 향기는 생명  
한 겨울의 한파가 가버린  
다음 오는 것과 같이 있  
으면 또한 그것을 참고 견  
뎌야 한다.

대내는 것은 만만치 아니  
한 유약의 실패 마칠 수  
있다. 산은 인생자책이며 선  
을 줄기는 데서 인생의 리  
미움을 체득할 수 있다는  
말은 공멸론이 아니다.  
근해 해를 거듭할수록  
산을 애호하는 산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파는공  
소한 他者처럼 산정의 등  
미를 모르고 자연과의 동  
지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  
다. 하늘을 치웃는 고층빌  
딩과 미끄러지는 자동차의  
위를 달려가는 자동차의 발  
수속에서 자연을 망각하고  
먼저진단한 마음  
의 속살을 한탄하는 인간  
들이 많다.

이제 우리는 백설로 뒤  
덮힌 한라산을 등반하는이  
런 기회를 계기로 하여  
정의 의미를 더욱더욱 진  
련하자.

『인간은 악산이다』라고공  
하라

악산이다 라고공  
하라고 싶다.

는 사람치고 악인은 없는  
법이다. 학살들은 젊은  
과 부루는 남한의 의혼산  
속에서 불태우는 열정울갖  
도록 뛰쳐나갈 것이다.  
현실의 육구불완 비생산  
적인 위험에서 발산하자! 발  
고 산의 맑은 공기들을호  
흡하는데서 사람의 정화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수평하  
는 막중한 인형에게  
수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  
여를 보아주어 제민익의중  
지를 피우는데 인생적의  
발견을 당부하고 싶다.  
꿈으로 이 행사에 참여  
하는 과 대학 산악회는  
전진한 등반기술의 연마를  
통하여 얻어진 의지와 불  
가능한 기쁨으로써 세계  
의 인격선장과 밝은사회  
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있  
는 드높은 정신을 하나  
하는 계기가 되어 주기  
바라고 싶다.

3. 공군소령 玄氏의 말에 의하면 마닐라시 三五〇만 인구중에 한국사람이 경영하고있는 레스토랑은 한 집밖에 없다하면서 우리에게 "가 보시겠느냐" 하기에 우리는 일행은 "가봅시다" 하여그 집으로 갔다. 그 집은 마닐라의 중심가에 있는 초대한 二층집인데 삼첩 이층은 "아리랑집"이라고 간판이 붙여있었으며 들어가 본 즉 한국여성의 五・六명 있어서 다방인지 바인지 모를정도 초라한 집이었다. 시간관계로 오래 머무룰 수없이 비루한잔 액을 나누어 마시고 아리랑집을 떠났는데 전 전 중업원이 나와서 우리를 환송해주었는데 눈시울이 뜨거운 것을 금치 못했다.

4. 八月二八일 국으로 출발한 줄 알았는데 비행기 사정으로 하루를 더 호텔에서 머무르게 되어 우리들은 한가한 자유시간을 가져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행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정담게 오전 二시 三〇분까지 환담을 하면서 필리의 마지막 밤을 지냈다.

5. 9월 1일 9시 30분경 마닐라에서 1969년 9월 19일 노라여. 노라여 시. 김 용 김 컷. 김 재 천

수심 깊이 가라앉은 나의 음울한 여느 누가 들도치고 있는가

열손가락 하나씩

[송년시]

1969년 9월 19일 노라여. 노라여

第二回 全國大學生

적설기 한라산 등반 대회開催公告

待望의 七〇年代를 앞에두고 삼가 尊堂에 幸運이 깃들기를 빕니다.

금번 저의 大學에서는 날로 高調되는 登山熱과 激增하는 山岳人들의 趣向에 呼應하여 【第二回 全國大學生積雪期 登攀大會】를 開催합니다.

이를 通하여 보다 훌륭한 登攀技術의 鍊磨를 圖謀하고 健康 增進과 情緒淳化를 期하여 人格陶冶와 祖國建設에 이바지 하고저 합니다.

바라옵건데 금번의 大會에도 積極 參與하셔서 盛況

이색적인 월남인의 葬의行列

생각하는 것은, 제 주제를 물. 20년간은 지쳐도 무리. 월남은 약  
수간. 본 제 주제를 국. 20년간은 지쳐도 무리. 월남은 약  
출판업인. 농산과 해외. 불만이었다. 비해장은 수월했다  
잡작. 동남아. 민선. 주일. 한국군. 수월한. 그리고여  
최전선에. 제자를. 라참도들이. 다정하게. 한송하여가  
가다. 글자 그대로. 강개. 사이공을. 출판(54가주  
참도인. 각자. 한송하여가. 행한지. 얼마. 안되어. 사. 일  
발. 감사. 발. 이. 다. 마. 강. 우. 일. 초  
물. 무. 무. 다. 마. 강. 우. 일. 초  
변명의. 드. 한. 만. 더. 어. 줄. 못. 어. 없  
467.로. 담. 도. 어. 미. 가. 나. 어. 무. 이. 단  
면. 당. 매. 비. 행. 가. 후. 주. 주. 우. 리. 한  
생각하는 것은, 제 주제를 물. 20년간은 지쳐도 무리. 월남은 약  
수간. 본 제 주제를 국. 20년간은 지쳐도 무리. 월남은 약  
출판업인. 농산과 해외. 불만이었다. 비해장은 수월했다  
잡작. 동남아. 민선. 주일. 한국군. 수월한. 그리고여  
최전선에. 제자를. 라참도들이. 다정하게. 한송하여가  
가다. 글자 그대로. 강개. 사이공을. 출판(54가주  
참도인. 각자. 한송하여가. 행한지. 얼마. 안되어. 사. 일  
발. 감사. 발. 이. 다. 마. 강. 우. 일. 초  
물. 무. 무. 다. 마. 강. 우. 일. 초  
변명의. 드. 한. 만. 더. 어. 줄. 못. 어. 없  
467.로. 담. 도. 어. 미. 가. 나. 어. 무. 이. 단  
면. 당. 매. 비. 행. 가. 후. 주. 주. 우. 리. 한

[illegible][illegible]

一九六九年 十二月

濟州大學

學長

金 繼

鏞

總學生會長

金 榮

洪

## 행사개요

一 대회장소 한 라 산

二 대회기간 一九七〇년 一月 五日~九日(五일간)

三 개회식 一九七〇년 一月 五日 오전十시(제주대학)

四 참가자격 전국 남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학교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팀

五 참가규정 가) 一개조 三명 이상

나) 참가팀은 본대학 소정참가 신청서와 추천서에 기입 소속학장 또는 총장이 서명날인 하고 참가회비를 첨부하여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六 신청기간 一九六九年 十二月 五日~二十六日(二十일간)

七 참가회비 一인당 회비 二〇 원

八 주장회의 一九七〇년 一月 四日 二〇시(제주대학회의실)

九 시상성적 우수한 팀에 대하여는 상장과 우승기 및 트로피를 수여한다 (단 우승기는 三년 연속으로 한다)

十 폐회식 一九七〇년 一月 九日 제주대학대강당

十一 장비및식량 참가팀 표식기와 四각五일에 소요되는 식량및장비 자체한 것은 제주대학 등반대회 본부에 문의한것

十二 기 타

※ 참가팀에 대하여는 페난트와 기념배치를 증여함

주 최 제주 대학

주 관 제주대학 총학생회

후 원

문교부 제주도 대한산악연맹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시

제주도산악연맹회 제주도체육회 제주지역경비사령부

제주경찰국 제주신문 제남신문 제주방송국 남양방송

주최회사

---



겨울밤의 思考

商二양찬수

가나 달랠 만의 누락은 갈  
초저녁 달빛이 싸다  
사리로 나를 비추고 있단  
저기 사람이 가느구나 미  
발붙임 타이는 버  
를어지고 구두는 노란색인  
구두 끈은 청정색인 막  
때때 휘한 금글 무늬한  
여디로 가는가? 송장지갈  
도 실은은 골짜기를 걸  
베스속으로 어들은 저  
만치서 웃었고 기다리는  
대안에서 서둘러는 시  
간이다. 에스는 굴러가고 맥  
스는 물결을 이뤄 새겼었  
까진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차르히다. 아스를 골목에  
허허하다. 거리된 한쌍의 남  
녀가 정적의 부름 꼭 눌러  
전주세. 기대선 나를  
발걸음 주춤시킨다. 이젠  
나도 가야지 멀리 코회의  
출소하기 초라한 모습을 방  
영해. 지금쯤 집에서 반  
마다 꽃들을 매놓고 지내  
었다. 차와니 너를 조상파도  
의 자하선 언덕에 조상파도  
같이...  
예감이 내신장에  
기운 울음을 주고 그드  
기운 울음이 나의 전신에  
달구고 있다. 뜨거워진 전  
신을 식혀라. 두근 애가 보  
뜨려지고 구두끈 단 열두바  
대 접어가는 나. 멀더마  
새의 가로등 밑을 지난날  
누군가 학생이 나를 향해  
경이하고 있음을 느꼈다.  
오래전엔 친했는 여자다.  
어디로?  
광장을 끼고 유유히 걸  
어가는 그녀를 보고싶다  
대답을 받기가 부끄레 꽃  
기는 장아찌 마냥 발길을  
살한다. 그녀의 손에는 이  
슬찬 네모사리를 들고 있  
고 상자의 더진 뜰은  
엷구인지 소우인지 트물춘  
범자가 보인다. 손에는꼭  
있고요양일 장갑이  
머리에겐 잠정 마후  
라가 그러나 밑에는 쇠단  
의 미늘을 입고 있다. 눈  
술엔 푸즈를 칠하고 입  
은 눈섭을 그리고 발아 벗  
은 그녀의 아픈 향수불집  
했을것이다. 아무의 사랑  
나오는 한숨은 짜라 짜라  
얼굴을 때리는 눈발들  
부이고 있다. 갑자기 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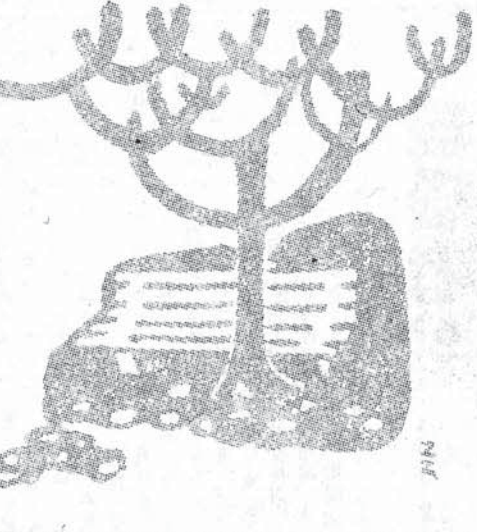
69  
12  
금  
요  
의  
밤

김재호(상二)

어들이 꼬리를 깔고  
내가 키워왔던 落室을 향해  
시간을 켰다.

좁은 점의 집으로 현실을  
지킨 나의 어둠으로  
꼬리를 깔며 어둔 회색배일  
은 새롭게 무장을 하는 것  
이다.

이겐  
모든 편리한 利器들을 생기  
고 거미를 찾아 나선 채



一九六九년을 보내며 자  
신이 지나온 것들을 더  
들어 보아야 하는 날에 고등  
학교 시절에는 중의 세계  
로만 동경하던 나의 세계  
이제 동경의 세계로가 아닌  
두 물아로는 입장이 사계  
후에서 멀 갈 때는 것  
되면서 어떤 공지를 갖는  
다기 보담 의외와 허탈한  
수 없지는 아니겠 것은 이럴  
자라는 일인것 같다. 때  
때로 돌아 가면 잡야(萬葉)  
단 시조로들 것 같아 보이  
던 시선으로 그 리을을 리  
어디나 부질된 생각은 사  
유한다 무진된 느껴지는 나  
리만 가라 만치 느껴지는 사  
필생의 부조리에 반발하  
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과 성과를 거두며 물러  
고 있어야 할 것을  
후회 못함 같은 것들이  
부질로 될 같은 것  
다. 동기 가 어쨌든 70년  
마음으로 발을 딛고 서  
거준 일하지 그 후 나날  
바람 조금은 실망은  
있는 장래에도 공허감을  
안겨 주었고 초창기까  
비밀을 뒷받침으로 고통  
보다 못한 시설들도  
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필요한 거대했던  
모든 보다 많은 보  


四

가정학과 V였기에 농가정파인  
역지 가락과인 지 구분도 학  
문적 양상에서 있게 하  
다 갔다 하는 정도 보다  
있다. 떠나가면서 체중을 내  
리듯이 울분을 토해냈어  
는 전절은 밝히우고 싶지  
않은 조그만 야염이. 학교  
를 위해 도사리고 있었다  
보다.  
오늘의 자신은 꿈을 먹  
으며 살던 옛날의 소니가

想

자 알겠는가? 가정 달갑  
잖다. 무관심이 가장 달갑  
지 않게 말했던 우리八호  
음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있고 있고  
부여하거 부잡을 이  
달한 단순하고 안일한 삶  
을 해온 우리의 조상들의 미  
이 오래되었지만 지식을 위  
한 지식보다 보다 넓은 인  
간관계들 통해 얻어진 함  
의 기반으로 생애 의지를  
부여할 줄 알아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습득시키며 꿈  
계 끝까지 살아갈 줄 아는  
것 만으로도 족하다. 호우  
같은 것은 있다.



삼국사기

[illegible]

육행사로써 체  
사로써 이기

[illegible]

白人研究會

나는 물줄을 옮겨 돌아놓  
 다. 하나 하나의 입들이  
 도를 떨어뜨리며 회전하  
 있다. 5인치의 반지름  
 었다가 다시 5인치를더  
 크기로 세를을 형성하  
 세로의 구조를 이리저리  
 단단한 체자를 가만의  
 이다가 갑자기 비각하  
 어두운 옷자락을 생  
 의한다. 세상에서 아비지  
 의 창찬이 글씨를 차  
 했고 아한 변엔 은  
 라도 더러운 모양이다. 나  
 는 옷을 수가 없다. 저런  
 목욕이 돌리는데, 마수유가  
 전하고 오스키를, 사수자의  
 인이 있는데 도저히 옷을  
 수가 없었다. 파란한 시멘트  
 위가 이 면지가 나를 감  
 싸고 있는데 점 주인 방  
 에서 아도오의 소리가 들  
 린다. 마도오의 화장들은  
 비누는 한일 소바  
 스드립트는, 마크 치약  
 명일, 소주, 마  
 스드립트는, 마크 치약  
 미를 위협했고 그 여인은  
 다가가 책을 꺼낸다. 책의  
 트의 희미한 빛 아래서나  
 다. 리하의 The meaning  
 of meaning을 읽는 때  
 자. 수간 불이 꺼진다.  
 저대로 보내주  
 지 못하는 행정이 안락한  
 다. 누가 나를 부르니  
 자. 여인과 울부짖을  
 게 된 일온은 그 여인이  
 찾아와서 나를 부르니  
 이어서 나를 파도가  
 이어서나. 파도가  
 여인은



생각해. 하늘이 왕왕을 니라 내,  
다. 어디서 다이나마이트 때문이었

본사에서 쓰는 방학중 재학생 여려분의 원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투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음

종 류

▲ 단편소설〔원교지 七〇매 내의〕  
▲ 수 필〔 " 一五 " 〕  
▲ 시 [제한없음]

제대신보사 편집국

보낼 곳

一九六九, 一二, 三〇

제대신보사

# 海女研究

❖ 重要目次 ❖  
 I 장수의 起源  
 II 장수의 作業  
 III 장수의 法的 關係와 組合

濟州年鑑  
販賣開始

▲중요내용▼

▲道内外 重要日誌

▲濟州道解放 23年誌

▲濟州島 略史

▲濟州道 概要

▲道條例및 規則

▲要覽및 統計

▲重要人名錄

◆寫眞으로 본 事件

◆寫眞圖標等 多數

教育者도 行政人도 事務人도 學生도 家庭婦도 누구나  
권은 갖춰둬야 할 濟州道の 백과사전

定價 二、五〇〇원 普級特價 二、〇〇〇

東門路 新世界樂器店 二層

전화 三、〇一一번

제주년감사